

버스 운전사가 운전중 의식을 잃자 특수경찰이 나섰다

—2024년 4분기 '길림 좋은 사람' 하강남의 이야기



순라중인 심양철도국 통화공안처 특수경찰대원 하강남 (앞사람)

“운전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차가 계속 앞으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니다.”

2024년 7월의 어느 날 아침, 통화시의 한 시내버스에서 운전사가 갑작스러운 병 발작으로 의식을 잃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차량은 가파른 내리막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가고 있었고 안에는 1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이 순간, 한 청년이 앞으로 뛰어나가 단호하게 비상브레이크를 당겨 대형 사고를 막아냈다. 그가 바로 심양철도국 통화공안처 특수경찰대원 하강남이다.

◆ “특수경찰의 본능이 몸에 배어있었죠”

위기 순간에 앞장서는 건 우연이 아니었다. “저는 철도 특수경찰입니다. 주요 임무는 관할구역내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력 테러 사건을 처리하고 군중의 생명재산안전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반은 근무지에서, 나머지 절반은 훈련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경비를 서고 강도를 잡는 것은 우리 업무의 일부라고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하강남은 자신의 사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강남은 당시 상황을 돌이키면서 “버스에서의 구조는 일종 업무 평가 같았어요.”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버스 뒤자석에 앉아있었다. 앞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이상하다 싶어 달려가 보니 50대의 운전사가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움켜쥐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며 “손아... 움직이지 않아...”라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운전사는 본능적인 책임감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순간 하강남은 특수경찰로서의 본능적 반응으로 120에 신고하려 했다. 전화를 꺼내는 순간 옆 승객이 “차가 다시 움직인다!”고 소리쳤다.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에는 8시 15분, 행인과 차량들

로 복잡하는 출근 고봉 시간대였다. 그의 머리 속에는 ‘빨리 운전실로 뛰어들어가 차를 멈춰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재빨리 전화를 옆 승객에게 넘기며 “120에 연락해주세요!”라고 웨치고는 좁은 운전실로 뛰어들었다.

당시 이 18번 버스는 시발역에서 갓 출발한 상황, 처해있는 구간은 300미터 내내 가파른 내리막이 이어지며 보행자가 많은 건설대로와 만나는 위험 지점이었다. 만약 그대로 미끄러지게 놔둔다면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아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켰다. 버스를 안전하게 멈춘 후야야 그는 온몸을 직진 식은땀을 흘렸다.

◆ 철도 특수경찰지대의 ‘황금사나이’

하강남은 2022년부터 심양철도국 통화공안처 특수경찰지대에서 근무했다.

료해에 따르면 특수경찰대원은 업무 특성상 선발과 훈련이 매우 엄격하다. 사격, 격투, 장거리달리기 등 각종 기술을 습득하는 고강도 훈련뿐만 아니라 체력, 순발력, 심리상태 등 전반적인 자질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 오래동안 쌓아온 훈련으로 그들은 피로와 고통을 이겨내는 강인한 체력을 갖췄으며 특유의 투지와 헌신정신을 키워냈다.

특히 하강남은 입대후 꾸준한 훈련과 노력으로 실력을 쌓아 특수경찰지대의 ‘황금사나이’로 불리운다. 공안부 철도공안국 무술경합에서 그의 소속팀은 집체 2등을, 심양철도국 특수경찰 무술경합에서 그는 개인종합성적 2위를 차지했다.

제때에 버스 브레이크를 밟아 운전사와 승객을 구한 하강남의 용감한 사적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인민일보》, 《광명일보》, 《신화통신》, 《법치일보》, 《인민공안보》 등 주요 매체들은 잇달아 관련 소식을 보도했고 단일 틱톡 동영상에서만 11만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경찰

하강남은 위기 대처 능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로도 정평이 나왔다.

하강남은 지난해 순찰중 가솔 소년을 발견했다. 직업적인 민감성으로 주동적으로 질문했지만 소년은 눈빛을 피하고 망설이면서 시중 자신의 실제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하강남은 소년을 당직실로 데려가 저녁밥을 사주며 대화를 나눴다. 대화에서 소년은 가족과 다툰 후 집을 나왔다고 말했다. 하강남은 소년의 부모에게 연락해 아이의 안부를 전하고 소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퇴근후 그는 소년을 집까지 데려다주었다.

용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강남은 2024년 4분기 ‘길림 좋은 사람’에 선정되었다. 통화 시민들은 “하경찰같은 분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리전기자 /사진 왕요휘



청년 리더십으로 전통 이어 미래 열다



—대련금보신구조선족 경제문화교류협회 회장 리취임식 거행

4월 7일, ‘대련금보신구조선족 경제문화교류협회 회장 리취임식’이 대련시 금해열음식점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대련아리랑예술단, 개발구행복예술단, 대련시개발구민족전문문화기지, 금주조선족로인협회 20여명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다졌다.

지난 세기 90년대초, 많은 한국 기업들이 대련시 개발구에 입주하면서 동북 3성에서 대련으로 온 조선족 인구는 2만여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과정은 대련시에서 1988년부터 30년간 대련시개발구조선족연합회, 금보신구조선족문화예술축진회, 금보신구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를 이끌며 민족 경제, 문화 발전에 헌신해온 방화(76세) 전임 회장이 이어 김명옥(59세) 제 2대 회장은 조선족 기업

인간의 경제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4회에 걸친 된장(무형문화유산)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 이날 김명옥 회장은 제 3대 회장직을 짊어 기업인 차성훈(36세)에게 물려주며 조선족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전달했다.

취임 연설에서 차성훈 신임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금보신구조선족 기업인들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을 추진하겠다.”면서 민족경제의 활성화를 기약했다. 특히 “경제와 문화는 한 방향으로 달리는 기차의 레우와 같다.”는 비유로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진 좌담회와 오락활동에서 참석자들의 진솔한 의견 교환과 노래공연이 이어지며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하고 조선족사회의 경제문화 발전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열의로 넘쳤다.

/리삼민특약기자



장백현, 봄철 소방안전사업 강화

최근, 장백조선족자치현 팔도구 변경파출소와 십일도구변경파출소, 팔도구변경검문소는 공동으로 관할구역의 농촌 및 사회구역에 대상으로 ‘평안정명, 소방안전’ 선전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서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팔도구진 중심가에 선명한 현수막을 설치했다. 동시에 자문 코너를 증설하여 주민들의 자문에 해답해주고 주민들에게 소방안전 자료를 발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봄철 소방안전에 대해 적극 선전했다. 특히 슈퍼마켓, 리관, 음식점, 기업, 학교 등 주요 시설들을 집중 점검하며 산불 예방과 청명절 기간 산소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 근절



을 강조했다. 또한 농촌과 사회구역에 삽입해 집집마다 방문하며 소방안전수칙을 설명하고 화재 발생 시 신고 절차와 인명, 재산 보호법을 가르쳐줌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한층 제고시켰다.

/장원수(張元首), 정의추(鄭義秋), 최창남



안도 림장 일군 자동차 사고로 갇혀있던 인원 구출해

최근 안도현 송강진 도원촌 촌민 서금신 부부는 촌당지부 서기에게 위탁해 특별히 안도현자연자원발전국 송강림장을 방문했다. 그들은 ‘타인을 돕는 것을 락으로 삼고 품성이 고상하며 사회에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한다’란 글귀가 쓰여진 감사기를 림장 사업일군 최저림에게 전하면서 그의 정의로운 행위에 숭고한 경의를 표했다.

지난 3월 25일, 최저림은 송화로에서 운전하던 중 승용차 한대가 중심을 잃고 뒤집혀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120에 신고하여 위치를 알린 뒤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차량으로 달려가 탑승자 3명을 련이어 구출했다. 120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구조과정에서 부상자 한명이 이미 심한 부상을 입은 것을 발견한 최저림은 결



단성 있게 자신의 차량으로 환자를 장백산보호개발구중심병원으로 급히 옮겼다.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던 중 수속을 도우면서 부상자가 귀중한 구급시간을 얻게 했다. 현재 부상자는 치료를 거쳐 위험에서 벗어났고 병세

가 안정적이다. “한명의 당원은 곧 하나의 기발이다.”라는 문구처럼 이번 사건은 위기 상황에서 앞장선 한 개인의 용기가 어떻게 사회 전체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촌민들이 전한 감사기에는 도움을 받은 이의 고마움과 ‘관건적인 시각에 앞장서고 위험과 어려운 상황을 막아내서’는 당원간부들에 대한 대중들의 깊은 기대도 담겨졌다.

관련 부문의 책임자는 “최저림의 행동은 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다.”며 “소소한 선행이 모여 문명사회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리전기자 /사진 안도현당위 선전부



인체기관 기증 등록 인구 705 만명 넘어

1일, ‘생명·희망’을 주제로 한 2025년 전국 인체기관 기증 추모기념 및 선전보급 활동이 선후하여 심양와 룡요원과 중국외과대학교 평화캠퍼스 강당에서 거행됐다.

료해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인체기관 기증 지원 등록 인수는 루게로 705 만명을 넘었다. 사망후 인체기관을 기증한 이가 5만 8,000여명, 유

체 기증 6만 3,000여명, 각막 기증 11만여명으로 기관부전 환자 17만여명의 생명을 구하고 10만여명이 광명을 보게 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인체기관 기증자 추모기념 장소 280여곳이 건설되었다. 해마다 청명절 기간 각지 적십자회는 다양한 형식의 추모기념활동을 개최하여 인체기관 기증 영광의 사

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체기관 기증이라는 이 크나큰 사랑 기여 사업에 참여하도록 호소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중국적십자회총회,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지도하고 중국인체기관기증관리중심에서 주최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관련 부문, 적십자국제위원회 동아시아지구 대표

처, 적십자회와 홍신월회국제연합회 동아시아지구 대표처 등 관련 단위, 전국 각 성급 적십자회, 인체기관기증관리기구, 인체기관획득(获取)기구 및 기증자 가족, 수혜자, 조정원, 지원자, 의학도 및 사회 애심인사 등 사회 각계 대표 350여명이 활동에 참가했다.

/신화사

통유현애심자원봉사자협회 자연보호구서 애심공익활동 펼쳐



청명절 연휴 기간 통유현(通榆县) 애심자원봉사자협회 자원봉사자들은 향해자연보호구에서 ‘생태 통유, 아름다운 향해,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 자원봉사자가 나선다’ 공익활동을 펼쳤다.

자원봉사자들은 쓰레기 봉투와 도구를 들고 만해각(揽海阁)과 학도(鹤岛) 사이의 쓰레기를 주우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태 습지를 만드는 데 헌신했다.

/길림일보

